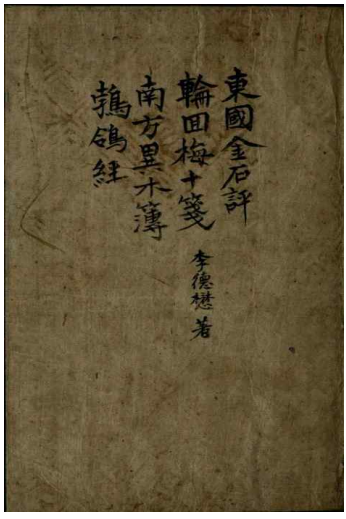
■ 민족문화연구 제87호(2020.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89-397.
http://doi.org/10.17948/kcs.2020..87.389

【해외한국학자료 소개】

《동국금석평(東國金石評)》 해제

정우봉(鄭雨峰)*

■ 작성주체 : 미상
■ 판종 :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冊 : 四周單邊 半郭 16.2 x 10.7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無魚尾 ; 21.7 X 13.6 cm
■ 주기사항
合綴 : 輪回梅十箋, 南方異木簿, 鶉鴿經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 21.2



《동국금석평》 표지.

1. 정의

《동국금석평(東國金石評)》은 금석문 관련 저술인 『동국금석평(東國金石評)』, 밀랍 매화를 소개한 이덕무의 『윤회매십전(輪回梅十箋)』, 기이한 나무의 이름과 특징을 서술한 『남방이목부(南方異木簿)』, 관상용 비둘기를 상세하게 다룬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유득공의 『발합경(鵓鴿經)』 등 모두 네 종류의 저술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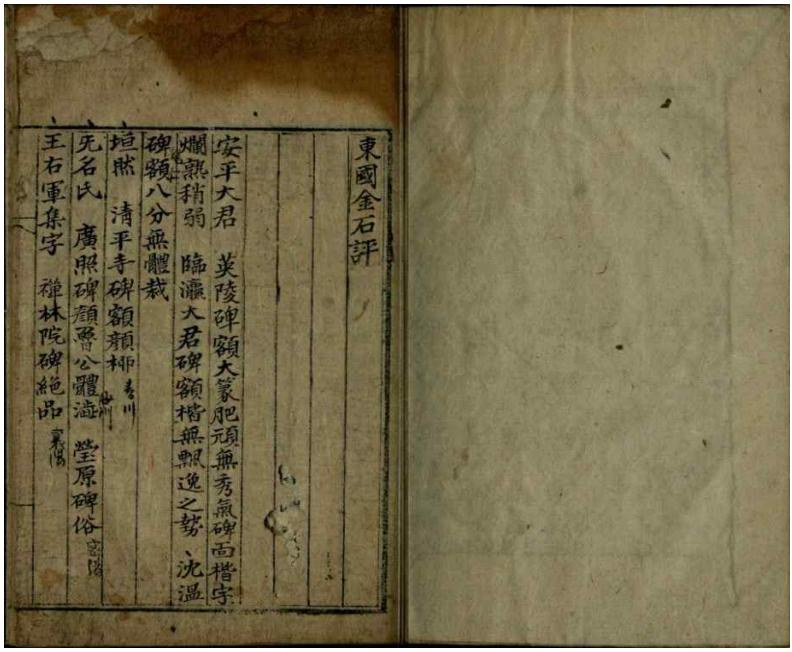
2. 편저자 사항

《동국금석평(東國金石評)》에는 모두 네 종류의 저술이 함께 묶여져 있다. 이 책의 편찬자와 편찬 시기는 미상이다. 네 종류의 저술을 포괄하는 책의 이름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서발문 등도 없다. 표지에 네 저술의 제목이 적혀 있고, 『윤회매십전』에만 제목 아래에 저자 표기를 하였다.

《동국금석평》에는 우리나라 역대 금석문(金石文)을 대상으로 서필자(書筆者), 편명(篇名), 서체(書體), 풍격(風格) 등을 적어 놓은 『동국금석평(東國金石評)』, 밀랍 매화의 제작 방법과 감상 등에 대해 소개해 놓은 『윤회매십전(輪回梅十箋)』, 기이한 나무의 이름과 특징을 간략하게 수록해 놓은 『남방이목부(南方異木簿)』, 그리고 관상용 비둘기의 종류, 명칭, 생태, 습성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발합경(鵓鴿經)』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윤회매십전』은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저술이며, 『발합경』은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저술이다. 나머지 두 종의 편저자는 미상이다.

3. 구성 및 내용

『동국금석평』은 위로는 7세기 무렵부터 아래로는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금석문(金石文)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의 서필자, 편명, 서체, 품평 및 소재지 등을 총 158 항목에 걸쳐 기록해 놓았다. 『동국금석평』에는 모두 150여 명이 쓴 금석문의 글씨에 대해 매우 엄정한 평가를 하였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김인문(629-694)으로부터 시작하여 송시열(1607-1689)과 김수항(1629-1689)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대 금석문의 글씨를 서법(書法)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여타 금석문 관련 저술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東國金石評
安平大君 英陵碑額大篆肥頑無秀氣碑面楷字
爛熟稍弱 臨瀛大君碑額楷無飄逸之勢、沈溫
碑額八分無體裁
垣然 清平寺碑額顏柳 春川
先名氏 廣照碑顏魯公體澁 堂原碑俗 密陽
王右軍集字 禪林院碑絶品 襄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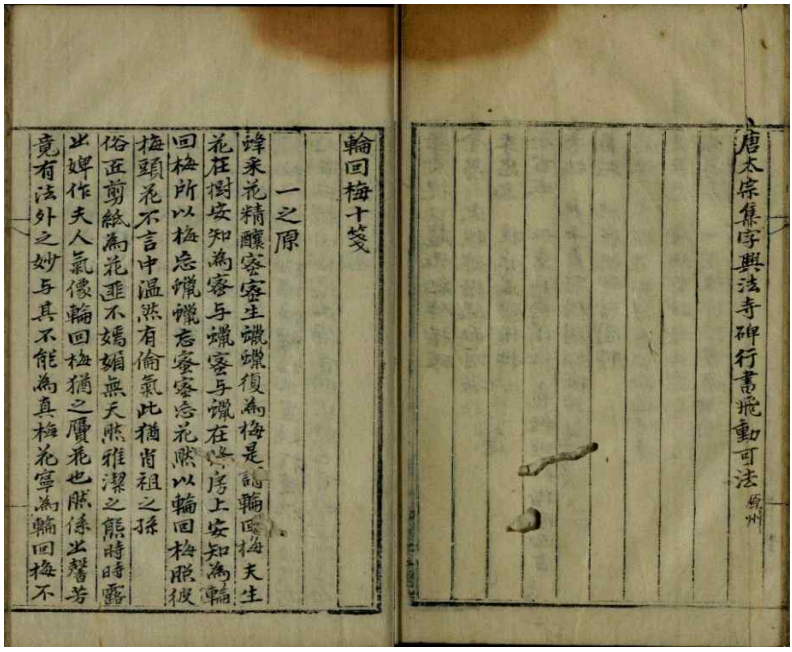
『동국금석평』 권수제면.

『동국금석평』의 항목 배열은 시기나 지역에 따른 체계적 분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원본은 아니고 후대에 전사된 것으로 보인다. 각 항목마다 서필자, 금석문의 편명, 서체, 품평어 그리고 소재지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이 중에서 소재지에 대한 정보는 원저자의 기록이기 보다는 후대인이 가필한 것으로 짐작된다.

『동국금석평』에는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서체와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서체를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전자는 서법사에 있어 각 시기에 문자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의 계통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예를 들어 갑골문, 전서, 예서 등을 말한다. 그리고 후자는 당나라 이후 어떤 서체가 특정 서예가의 손을 빌려 출현한 개인 풍격을 말한다. 즉 특정 서예가 개인의 서법이 지닌 풍격적 특징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체(歐體), 안체(顔體), 유체(柳體)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들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 서예사의 변화 발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 서예와의 영향 관계 속에서 서예사의 발전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국금석평』 다음에 실려 있는 『윤회매십전(輪回梅十箋)』은 이덕무의 유고를 모아 놓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62권에 실려 있는데, 내용은 동일하다. 밀랍으로 만든 윤회매(輪回梅)의 꽃잎, 꽃받침, 꽃술, 꽃, 가지, 꽃꽂이 등을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이덕무를 비롯하여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윤회매를 제작하고 완상하는 아취(雅趣)에 대해서 적어 놓고 있어 18세기 후반기 문인 지식인들의 문화적 취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동국금석평》『윤회매십전』 표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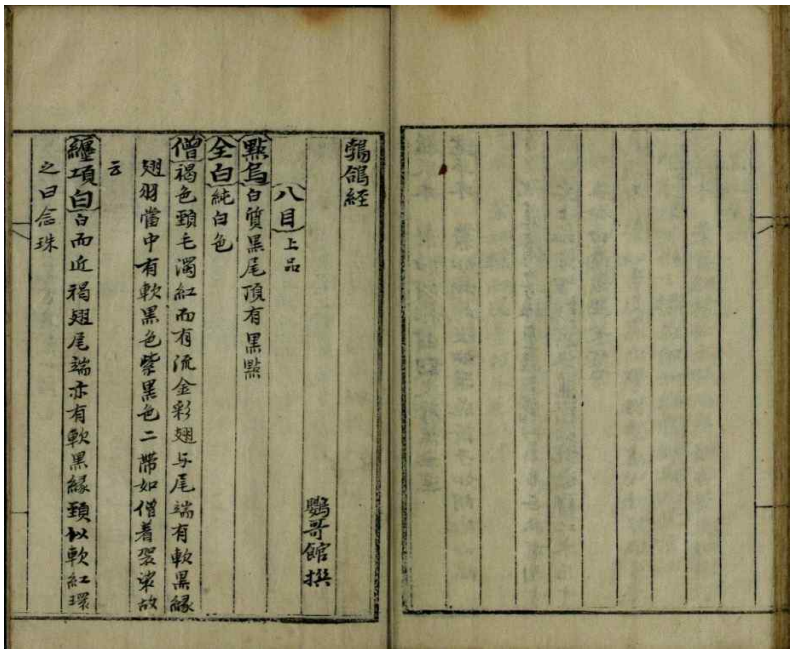
『남방이목부(南方異木簿)』는 심염조(沈念祖, 1734-1783)의 부탁을 받고 남

방의 어떤 선비가 기이한 나무에 대한 설명을 한문으로 서술한 것이다. 전체가 2장으로 매우 짧은 분량인데, 총 15가지 나무의 이름과 그 특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나무 이름을 열거하면, 대죽목(大竹木), 회목(會木), 근목(筋木), 가목(柯木), 합달목(合達木), 산유목(山油木), 일팽목(釗彭木), 진팽목(眞彭木), 잡율목(雜栗木), 고리목(古里木), 피목(皮木), 국도목(菊刀木), 나두목(羅斗木), 굴피목(屈皮木), 노평목(老平木)이다. 각 나무의 명칭이 앞에 나오고, 이어서 해당 나무의 특성, 예컨대 잎, 껍질, 꽃, 재질, 열매 등에 대해 적어 놓았다.

마지막으로 실려 있는 『발합경(鵓鴿經)』은 23종에 이르는 관상용 비둘기의 명칭, 종류, 외형, 습성 및 관련 사실 등에 대해 매우 소상하게 설명해 놓은 흥미로운 저술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八目(上品) : 點烏, 全白, 僧, 纏項白, 紫段, 黔隱層, 紫虛頭, 黑虛頭
② 十五雜目(下品) : 實點烏, 紫點烏, 多毫點烏, 黑虛尾, 紫虛尾, 黑僧, 古達纏項白, 紫魚濃, 黑魚濃, 加冶魚濃, 紫貫子, 黑貫子, 紫揮項, 黑揮項, 德去摩
③ 別稱 : 緊高頭, 無隱, 模外, 摩尼, 長突伊
④ 生 : 點烏與全白交, 生絲點烏. 僧與黑質交, 生黑僧. 紫段與白質交, 生紫魚濃
⑤ 相 : 眼睛有黑有黃, 有一眼靑, 一眼黃者, 爲奇格. 有睛一半黑一半黃者, 所稀有.
⑥ 性 : 有恒匹, 群處不亂, 非離亡, 則不改.
⑦ 鴿閣 : 관상용 비둘기의 집
⑧ 鴿鈴 : 관상용 비둘기의 꼬리에 장식하는 방울
⑨ 鴿篳 : 관상용 비둘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도구

전체 구성은 크게 9항목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미적 감상 대상의 특성과 관련 사항을 세밀하게 서술하는 데 장점을 갖고 있다. 『발합경』은 유형화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관상용 비둘기의 종류 및 명칭, 교배, 외관, 습성, 생태 등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18세기에 비둘기를 완상용으로 기르는 것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관상용 비둘기를 소재로 한 이같은 저술은 이옥(李鈺)의 『연경(烟經)』, 이서구(李書九)의 『녹앵무경(綠鸚鵡經)』 등과 함께 개인의 취향과 기호를 중시하였던 18세기의 새로운 지적 풍토를 반영한다.


鵓鴿經
八目 上品
鸚哥館撰
點烏 白質黑尾頂有黑點
全白 純白色
僧 褐色頸毛濁紅而有流金彩翅与尾端有軟黑緣翅羽當中有軟黑色紫黑色二帶如僧着袈裟故云
纏項白 白而近褐翅尾端亦有軟黑緣頸以軟紅環之曰含珠

《동국금석평》『발합경』 표제면.

4. 자료 가치

1) 서지적 가치

『동국금석평』은 18세기의 학술 및 예술 방면의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긴요한 자료이다. 『윤회매십전』의 경우에는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수록되어 있어,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3종의 저술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었다. 『발합경』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전재되어 있다. 『동국금석평』의 경우에는 『임원경제지』 『이운지(怡雲志)』에 일부 수록되어 있을 뿐이며, 『남방이목부』는 처음 알려진 자료이다.

2) 내용적 가치

『동국금석평』의 가치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그 일부만 알려져 왔는데 이번 발굴과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금석학과 서예사 연구의 기초 텍스트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저술은 우리나라 금석문 연구 및 서예사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 거듭해서 인용되어 왔으나, 연구자들이 접한 것은 『동국금석평』의 전체가 아니라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수록된 일부분만이었다. 총 158항목이 수록된 『동국금석평』의 발굴을 통해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역대 금석문 각각의 작품에 대한 품평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특히 『동국금석평』의 저자는 품평에 있어 매우 엄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예컨대 '속되다(俗)', '판에 박히다(板)', '신채가 없다(無神采)', '평범하다(凡)' 혹은 '아이들 글씨 같다(如童筆)'는 평어에서 보듯이 금석문 작품에 대해 매우 엄격한 예술적 기준하에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 『동국금석평』은 우리나라 금석문과 서예사의 변화 발전 과정을 중국의 서풍과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해명하는 데 매우 귀중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금석문 글씨의 미적 특질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셋째, 우리가 주목할 점은 『동국금석평』이 취하고 있는 서술태도이다. 저자는 금석문의 제작 시기, 글자 판독, 소재지 등에 대한 치밀한 고증 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석문을 하나의 예술품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감상, 완상하는 입장에서 각 작품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지금까지 서예사 및 금석문 연구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던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근역서화징』은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동국금석(東國金石)』의 『동국금석평』을 전재해서 실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수록된 부분이 있다.

다음으로 『윤회매십전』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화골동, 문방사우, 분재, 꽃꽂이, 꽃과 새, 차와 향, 바둑 등 생활 주변의 소재에서 미감을 찾고 즐기었던 18세기 후반기의 예술적 취향의 일

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종이로 만든 매화와 밀랍으로 만든 매화를 서로 비교하면서 소인(小人)과 도인(道人)에 각기 비유하면서, 윤회매야말로 꽃다운 향기가 스며 나와 법외(法外)의 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유 속에는 밀랍 매화를 하나의 예술 소품으로 완상하려는 심미적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둘째, 글쓰기 방식의 특징이 주목되는 바, 대상들 간의 상호 비교와 유형화를 통해 그것의 심미적 특성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 서술한다는 점이다. 먼저 유형화 방식을 살펴보면, 『윤회매십전』은 크게 원(原), 꽃잎[瓣], 꽃받침[萼], 꽃술[蘂], 꽃[花], 가지[條], 꽂꽂이[植], 첩(帖), 권(券), 사(事) 등의 10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제목의 '십전(十箋)'은 이러한 항목 분류에 의거한 것이다. 윤회매의 본원, 꽃잎, 꽃받침, 꽃술, 꽃, 가지 등의 제작 방법, 꽃꽂이하는 방법, 윤회매를 사고 판 권문(券文)과 그것을 붙여 놓은 첩(帖), 마지막으로 윤회매와 관련된 아취있는 일화 등이 그것이다. 요컨대 윤회매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완상하며, 그 즐거움은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해 유형화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서술은 완상하는 대상이 지닌 특성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매우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인 동시에, 완상 대상을 매우 세심하게 관찰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매우 세세한 부분에까지 미적 대상의 고하와 우열을 분별하여 서술하고 있다. 예컨대 밀랍 매화와 종이 매화를 아(雅)와 속(俗)으로 분별하거나, 밀랍 매화의 가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지는 반드시 매화나무 가지 혹은 벽도(碧桃) 가지를 써야 하는데, 촘촘해도 안 되고 길어도 안 되며 커도 안 된다. 체세(體勢)가 화격(畵格)에 맞는 것은 가지가 많아야 셋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곁가지도 5-6개면 된다. 색이 절반쯤 붉은 것이나 병들어 검은 반점이 생긴 것은 좋지 않다."고 한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발합경』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시기 문인사대부들의 예술 감상과 관련하여 하나의 특징적인 글쓰기 방식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발합경』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관상용 비둘기의 품종, 생태, 특성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비둘기를 하나의 완상 대상으로서 미

적 안목과 관찰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18세기의 새로운 학문 성향과 지적 풍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저술이다.

끝으로 『남방이목부』는 심염조의 부탁을 받은 저자가 15종의 기이한 나무의 명칭과 특징을 간략하게 적어놓은 저술로서, 18세기 문인지식인들의 박학적 학문 태도를 짐작케 한다.

▮ 참고문헌

박철상, 「조선시대 금석학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정 민, 「18세기 지식인의 완물 취미와 지적 경향」, 『고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327-354면.
정우봉, 「동국금석평의 자료적 가치」, 『민족문화연구』 제37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75-125면.